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갈라디아서 1:1~2:10.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의해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가르쳐졌다. (15~25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다음 설명을 읽는다.**

“몇 주 전에 저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과 함께 동부로부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는 어떠한 승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평행의 길이 많ی 있다는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정말로 나은 것은 아니며 단지 다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들은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교회에 속하든지 다른 어떤 교회에 속하는 것 못지 않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 만약에 학교가 그러한 철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길을 통하여서 똑같은 학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안하든, 시험에 합격하든 안하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학위를 받게 되고 자기가 택한 학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변호사, 의사, 기사 학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손에 자신을 맡겨서 수술받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종류의 교육이 왜 그들이 택한 직업에 대해 그들을 준비시키지 못하였는지를 질문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이나 영적인 문제나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교과 과정이 있듯이 필수적인 의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규정된 합당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회피하고 또 거기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 과정을 마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5년 10월, 106쪽; 또는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91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처럼 되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 모든 의식, 모든 성약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도 참된 복음이 이 지상에 존재한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에베소서 4:5, 13 참조)

다음 구절과 해당되는 질문을 읽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각자의 경전에 그 대답에 밑줄 그어 할 수도 있다.

갈라디아서 1:6~9 참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다른 복음 계획의 가르침들이 왜 사람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갈라디아서 1:10 종종 구주의 가르침보다도 인간의 가르침이 일부 사람들에게 더욱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11~12 바울은 경전과 자신이 어렸을 적에 받았던 종교적 훈련으로부터 복음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한 개심한 이후에 의심없이 교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사도행전 9:4~6 참조) 복음을 배우는데 왜 계시가 그토록 중요한가?

바울은 확신과 권능으로 복음을 가르친 비교적 새로운 개종자였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리가 확고한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중심을 두고 있음을 관리 역원들이 알기를 원하였다. **갈라디아서 2장 1~2, 9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에게 말했는가? (요한복음 1장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40~42절 참조)

•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 그들 모두가 같은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교리와 성약 1편 30절을 읽는다. 구주께서 선지자와 사도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바울의 시대에 지상에 있던 것과 똑같은 참된 교회를 회복하셨음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나누도록 권유한다.

갈라디아서 2:9~14. 사도들의 하나됨은 교회 회원들에게 힘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15~20분)

열세 자루의 연필 또는 크기가 같은 막대기, 그리고 고무밴드 몇 개를 준비한다. 자원자를 찾아서 연필 한 자루(또는 막대기 하나)를 부러뜨리게 한다. 나머지 연필들을 고무밴드로 꼭 묶어 한 묶음으로 만들고 다른 학생에게 그 묶음을 부러뜨려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연필을 한 묶음으로 만들었을 때 부러뜨리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

•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읽는다.**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친교의 악수”(수용과 지원) 받았다는 것이 왜 중요하였는가?

•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하나됨이 어떻게 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또 교회 사업을 관리하는 데 축복이 되는가?

베드로가 처음에 안디옥으로 갔을 때, 공공연하게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이 상황은 자신들은 이방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사도 야고보와 함께 도착하였을 때에 변하게 되었다.(갈라디아서 2:11~12 참조) **갈라디아서 2장 13~14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베드로가 이방인 개종자들을 떠나 유대인 회원들과 함께 먹으러 갔을 때 누가 베드로의 행동을 따랐는가?

•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 베드로와 바울이 이 일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갖는 것이 왜 중요했는가?

•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해 일치된 견해를 갖지 않는다면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약화될 것인가?

명백한 이 갈등에 대해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설명을 나눈다.**

“베드로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개종자들을 거스를까봐 두려워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 그 상황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갖고 있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베드로가 자신은 모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게 하려 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신약교리 주해서, 2:463~464)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화에 관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말씀을 읽는다.**

“인간은 모두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배경과 경험에 입각해 토론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을 의논합니다. 이와 같은 토론의 서두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끝나기 전에 만장일치가 이뤄지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이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도 그와 같은 의견의 일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2년 10월, 79쪽; 또한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59쪽 참조)

우리는 주님의 사도들의 하나됨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동료 회원들과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찾을 수 있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갈라디아서 2:16~2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20~25분)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고 무죄하다고 선언됨. 의롭다는 표현을 찾아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17절, 3장 11절, 24절을 속으로 읽는다.** 이런 표현이 여섯 번 있음을 유의한다. 의롭다는 표현이 있는 곳에 위에 적은 정의를 대치하여서 그 구절들을 큰 소리로 읽어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무엇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가?
- 무엇이 사람을 의롭지 못하게 하는가?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갈라디아서 주제. 그릇된 가르침이 자신이 개종시킨 개종자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음을 알게 된 바울은 그것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많은 이들이 속죄의 가르침을 거부하였으며 또한 모세의 율법을 다시 따르게 되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높은 율법인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행함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였는가?
- 의롭게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교리인가?

바울은 우리가 자신만의 노력에 기초해서는 무죄하다고 선언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갈라디아서 2:16)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의로운 행함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로마서 2:13; 야고보서 2:17~18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구주의 속죄의 힘을 이용한다. 속죄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한다. 이렇게 할 때 속죄의 힘이 우리의 생활로 흘러들어 와서 우리를 합당하게 만들어준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또한 생활 속에서 속죄의 힘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의 통로를 열어 유지할 수 있는가? **니파이 후서 25장 23절을 읽는다.** 순종하고 회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면, 속죄의 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갈라디아서 3:17~25.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졌다.(30~35분)

훈련용 바퀴가 달린 자전거 한 대를 교실로 가져오거나 칠판에 그림으로 그린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적힌 포스터 한 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적힌 포스터 한 장을 준비한다. 많은 어린이들이 훈련용 바퀴라고 불리우는 보조용 임시 바퀴를 사용하여 자전거 타기를 배운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 이 바퀴가 왜 도움이 되는가?
- 여러분들은 얼마 동안이나 이 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탔는가?
- 훈련용 바퀴를 떼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 여러분의 능력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복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상에 있었는지를 찾아보면서 **모세서 5장 58~59절과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읽는다.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높은 복음 대신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던 이유를 찾아보면서 **모사이아서 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는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축복들이 모세의 율법이 주는 축복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점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바랐다.

다음의 **도표의 각 구절을 읽고** 각 설명이 그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답을 "예/아니오" 세로줄에 적는다.

구절	설명	예/아니오
갈라디아서 3:19	모세의 율법은 의로운 백성에게 주어졌다.	
갈라디아서 3:19	모세의 율법은 영원히 계속되도록 계획되었다.	
조셉 스미스 역, 갈라디아서 3:20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갈라디아서 3:21	모세의 율법은 약속된 구주의 오심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	
갈라디아서 3:22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3:23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영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4~25절을 읽는다. 다음 질문을 사용하여 바울의 비유에 대해 토론한다.

- 이 비유에서 초등교사는 무엇인가?
- 누가 학생인가?
- 초등교사는 어떤 종류의 짐을 학생들에게 지우는가?
- 그러한 짐이 어떻게 모세 율법에 비유될 수 있는가?
- 학생들은 얼마 동안이나 초등교사를 필요로 하였는가?
- 어떻게 그것이 모세 율법과 비슷한가?

모세의 율법도 훌륭한 율법이었다. 모세의 율법은 구주께서 주신 것이었다. (제3니파이 15:5 참조) 모세의 율법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한, 그것은 사람들을 구주의 오심에 대해 준비시켜 줄 뿐이었다. (니파이후서 25:24~25 참조) **모사이아서 13장 32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부터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하였는가?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대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야곱서 7장 10~11절, 모사이아서 13장 33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울 수가 있는가?

경전을 탐구하고 또 현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기울임으로써 지속적으로 구주를 따른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갈라디아서 5:16~25. 성신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은 영의 열매를 생활에 가져다준다.(10~15분)

나무에서 자라는 것으로 두 종류의 열매를 보여준다. 그것들이 어떤 나무에서 자라는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칠판에 그려진 나무를 칠판에 그린다. 열매나 나무의 이름을 적지는 않는다. **갈라디아서 5장 19~23절을 읽는다.**

두 학생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한다. 한 학생에게는 19~21절에 열거된 열매를 맺는 나무의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다른 학생에게는 22~23절에 열거된 열매를 맺는 나무의 이름을 말해보게 한다.

두 학생이 나무의 열매 이름을 적고 있는 동안, 다른 두 학생에게 사전을 주고 칠판에 나온 단어 가운데 어려운 단어의 뜻을 찾아보게 한다. 필요하다면 사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전체가 함께 이 열매들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각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가?
- 육체에 속한 것들이 그들에게 큰 해를 미칠 수 있는데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는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또한 육체의 일들을 피할 수 있는가?

성신의 속삭임은 우리 생활에 성령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도록 지시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읽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질문한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했을 때 다음과 같이 뜻 깊은 말씀을 해 주었다.

“교회 회원들의 생활에서 성신의 은사를 지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 편집, 전 5권 [1957~1966년], 2:114)

우리는 침례받은 회원으로서 성신의 은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침례 성약을 지키므로써,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거부하고 영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성신의 열매가 주는 기쁨을 우리 생활에 가져다 줄 것이다.

갈라디아서 6:7~10. 수확의 법칙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15~20분)

심음 그리고 수확을 함이라고 칠판에 적고, 또 학생들에게 원예의 이 두 가지 기본 과정을 설명한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씨앗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이 씨앗에서 어떤 식물이 자라날 것인지를 맞혀보라고 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가 한 종류의 씨앗을 심었는데도, 다른 종류의 식물이 자라날 것 같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각 종이에 갈라디아서 6장 7~10절의 각 구절을 적어서 각 그룹에게 하나씩을 준다. 각 그룹에게 이 구절을 요약해 주는 문장을 하나씩 적어보게 한다. 그리고 나서 각 그룹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적은 문장을 칠판에 적게 하되, 핵심 단어는 빈칸으로 남겨 두게 한다. 반전체가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10절**을 읽고 빠진 단어를 채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읽고 나서 수확의 법칙과 그것이 인생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수확의 법칙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8절을 읽고 질문한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영을 위하여 심음으로써 수확을 거두었던 축복을 나누어주도록 권유한다. 이러한 경험에는 경전 읽기, 봉사 활동, 금식, 또는 인내심을 보이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수확의 법칙에 예외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보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제3니파이 27장 11절**을 읽게 하고 나서 “때가 이르면”과 “잠시”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 율법에 예외가 없음을 나타내주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비록 이 율법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취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다음 사례 연구를 주어 이 율법이 어떻게 각 상황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 김민규 형제는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데도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버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정민수 형제는 김 형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으나 십일조는 내지 않는다. 그는 상당히 많은 물질적 재산을 가지고 있다.
- 김채연 자매는 정직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고등학교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다. 박미연 자매는 시험 중에 부정 행위를 하여 최고 성적을 얻었다. 성적이 좋아서 이 자매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했던 **다음 말씀을 나눈다.**

“악인이 일순간 변성할 수 있으며, 반항자가 범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정의의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어느 사람도 심판대를 피해 갈 수는 없다. 그 날에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한 벌을 피할 자는 하나도 없게 되며 자기가 쌓은 축복을 잃을 자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 온전한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마태복음 25:3~46 참조) (용서가 낳는 기적, 276쪽)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63~64쪽; 또한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47쪽)

에베소서 1:3~12. 하나님은 전세에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특정 책임과 축복들을 받을 충실한 자녀들을 예임하셨다. 예임된 부름을 완수하고 약속된 축복들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충실하게 생활해야 한다.(15~20분)

천이나 이불보를 높이 들거나 천장에서 늘어뜨린다. 학생들에게 그 천이 전세와 현세를 분리하는 망각의 휘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 휘장을 통과하여 전세에서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생각해보게 한다. 그들 자신에 관해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질문하고 또 그들의 생각 몇 가지를 나누게 한다. 비록 우리가 전세에서의 개별적인 존재에 관하여 상세하게 많은 사항들을 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세 명의 학생들에게 다음 성구를 크게 읽고 또 각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학생들을 위해 요약해 주도록 부탁한다. 예레미야 1:4~5; 사도행전 17:24, 26; 아브라함서 3:23.

칠판에 예임이라고 적는다. 학생들에게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권유한다. 이 단어를 한자씩 분리하여 예(foe)와 임(ordain)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간략하게 토론한 후에, "필멸의 생애 동안에 어떤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세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용감한 영의 자녀들 가운데서 택하시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려준다.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예임이 되어 수행해야 하는 사명의 종류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위에서 세 학생이 읽은 성구를 상기시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나눈다.

"이 세상의 주민에게 성역을 베푸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열렸던 천국 회의에서 그 목적을 위해 성임받았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서 이 목적을 위해 성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63쪽)

에베소서 **1장 1~12절을** 구절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한다. 여러분은 다음 글과 질문 가운데서 몇 가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1절 바울이 누구에게 서한을 썼는지를 주목한다. 복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람들에게 이미 가르쳐졌는가? (성도로서 그들은 기초적인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울의 모든 서한이 교회 회원들을 위해 쓰여졌음을 여기서 강조한다.

2~3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바울의 이해에 관하여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4절 어떤 표현이 예임을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이 되도록 예임되었는가?

5, 11절 예정되었다는 것의 정의에 주목한다. 만일 우리가 성약을 지킨다면, 어떠한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되었는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임된 부름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그들을 데려다 놓으실 것이라고 증거한다.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의 다음 간증과 권고로** 끝맺는다.

"아브라함이 묘사했듯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수천 명의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밤 이 큰 건물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 저는 주님께서 세계 역사상 이 어려운 시기에 강하고 용감하도록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특별한 영들을 보내 주셨다고 믿습니다. ..."

"저는 온 마음을 다해, ... 여러분이 ... 합당하고 진실하게 되기를 당부합니다."(Conference Report, 1995년 9~10월,

에베소서 2:1~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25~30분)

-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 그 요소들 가운데서 사람이 가져온 요소는 무엇인가?
- 구주로 말미암아 어떤 요소를 얻을 수가 있는가?

구원의 모든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되었다. 우리는 구주가 없이는 영생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구주께서 마련하신 도움을 묘사한 단어를 찾아보면서 **에베소서 2장 4~6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나타난 핵심 단어를 찾아보면서 5, 7~8절을 읽는다.

"은혜"의 정의를 말해 주고, 은혜의 요소를 칠판에 열거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은혜의 충분한 유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2장 8~9절을 읽고 은혜가 은사임을 강조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는 마련하지 못할 은사들을 마련하셨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가?
- 구주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다른 어떤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히라만서 14장 13절을 읽고 또 이 구절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비교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물론경은 신앙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점을 가르쳐 주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정해 주신 선한 행함에 대해 토론한다.

구주께서는 매일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매일 그분의 손길을 인식함으로써 그분에게 감사를 표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찬송가, 111장)을 부름으로써 끝맺는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에베소서 4:1~16(성구 익히기. 에베소서 4:11~14) 주님께서는 사도, 선지자,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로 만드는 일을 돕도록 하셨다. (20~25분)

에베소서 4장 1~6절을 읽는다. 복음이 마치 건반과 같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침례가 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또 다른 것이며, 신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또 다른 것이다. 온전한 건반은 승영에 필요한 복음 원리의 조화를 제공한다.

칠판에 다음의 피아노 건반 그림을 그린다. 맨 위에 교회 지도자, 목적, 우리가 ~될 때까지 필요함이라는 말을 포함시키되 다른 단어는 빈칸으로 남겨둔다.

학생들에게 **에베소서 4장 11~13절을** 읽게 한다.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첫째 그룹에게는 묘사되어 있는 교회 지도자를 찾아보게 한다. 둘째 그룹에게는 이 지도자들의 목적을 찾아보게 한다. 셋째 그룹에게는 주님의 교회에서 이 지도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할 것인지를 알아보게 한다. 세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칠판에 있는 도표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지도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모든 피아노 건반이 필요한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해준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도자들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찾아보면서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학생들에게 읽게 한다. 학생들에게 이 구절의 메시지를 자신의 표현으로 적게 하고 또 몇몇 학생들에게 그들이 적은 것을 학생들과 나누도록 권유한다.

주님의 교회 조직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을 증거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선지자, 사도, 스테이크 회장, 감독, 축복사, 교사로부터 받아서 따랐던 권고의 몇 가지 예를 나누도록 권유한다.

에베소서 6:10~18.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25~30분)

나중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위의 로마 병사 그림을 복사한다.

건설현장용 헬멧, 야구 포수용 또는 하키 골키퍼용 얼굴 보호 마스크, 소방 대원용 두꺼운 코트, 앞부분이 쇠로 덮힌 구두와 같은 보호 장구를 가져오거나 칠판에 그림으로 그린다. 학생들에게 각 물건들이 어떻게 보호를 하여주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로마 병사의 그림을 보여준다. 그림 위에 다음의 질문을 적는다.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토론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펴게 한다. 학생들에게 2~3분간 시간을 주어서 싸움과 관련된 찬송가를 최대한 찾아보게 하고, 그들의 제목을 칠판에 적게 한다. (주 예수의 군병들", 185장, "싸움 끝나는 날까지"179장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는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2:7~11 참조)
- 적은 이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0~12절을 읽고 토론한다. 사탄이 우리에게 벌이고 있는 싸움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한계시록 12:17; 교리와 성약 76:28~29 참조)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며 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일이든지 행할 것이다.(니파이후서 2:18 참조) **해럴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경고하였다.

"이 생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쟁은 사람을 적으로 하여 벌이는 싸움이 아닙니다."(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330쪽)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는 다른 도움이 없이도 사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싸움에 홀로 있도록 하지는 않으셨다고 간증한다.

에베소서 6장 13~17절을 읽는다.

갑주가 보호하는 네 가지 신체 부위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묻는다.

각각이 나타내는 바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이러한 상징들을 그림에 덧붙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면서 갑주의 각 부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 우리의 생각을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개념에 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 우리의 느낌과 태도가 어떻게 의로써 인도되고 훈련될 수 있는가? (앨마서 38:12 참조)
- 어떤 복음 진리가 우리의 순결을 보호하여 주는가?
-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진로를 인도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어떻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고 또 학생들에게 갑주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 보게 한다. 갑주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없애는 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보호를 약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했던 권고를 나눈다.

"닫힌 문으로 악이 스며들기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 그 악은 잠겨진 문을 열 만한 열쇠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기만 하면 발가락을 들여 밀고, 곧 발과 다리와 몸과 머리를 넣으며 마침내는 온 몸을 문 안에 넣고 만다. ..."

"... 루시퍼는 최초의 유혹에 굴할 때 재빨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 곧 양심이 굳어지고 악의 힘이 지배하게 되며 구원에 이르는 문은 완전한 회개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굳게 닫혀지고 만다" (용서가 낳는 기적, 197~198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 그것은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 우리는 깨끗하지 않고서 전능자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할 것들은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코카인이나, 환각제, 알콜, 담배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부도덕한 행위에 휩쓸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하고서는 ...주님의 대업을 위한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

"...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영혼과 관련된 위대하고 영원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참되다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하며, 또한 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6년 10월, 57쪽; 또한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7~58쪽)

학생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갑주를 통해 보호를 받았던 경험을 나누도록 권유한다.